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2. 5. 16.(월) / 총 5매(본문2, 참고3)	
담당 부서	건축문화경관과	담당 자	· 팀장 김용수, 사무관 진해미, 주무관 안영경 · ☎ (044) 201-3765, 3780
보 도 일 시		2022년 5월 17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17.(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25년 개관하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서 전시공간을 완성할 파트너를 찾습니다.

- 19일 박물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·설치 용역 입찰공고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‘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‘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·설치 용역(이하 용역)’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5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.
 -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,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2개월, 용역금액은 287억원이다. 입찰이 마감되면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7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.
 - * 현장설명회(6월) → 제안서 제출 마감(7월) → 제안서 평가(7월) → 업체 선정(7월)
 -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)과 나라장터(www.g2b.go.kr)에서 찾아볼 수 있다.
-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·건축 유산의 자료 보존, 전시,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거점시설로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 단지 내에 조성되고 있으며, 11,970 m²의 부지 면적에 연면적 약 21,000 m², 지하 2층~지상 3층의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.
 - 건축물 디자인은 2020년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김유경(유케이에스티 건축사사무소)과 알레한드로 자에라-폴로(Alejandro Zaera-Polo)의 설계안이 당선되었다. 현재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2년 말에 첫 삽을 뜰 예정이다.



<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>

- 국토교통부는 2021년 공개공모를 통해 위촉한 전시감독(김성홍 서울 시립대학교 교수)과 함께 전시주제 및 기본 콘셉트 등을 담은 박물관 전시기획안을 마련(21.12)하였으며, 선정업체와 함께 박물관 건립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참조하여, 전시설계를 통해 이로부터 보다 발전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.
 - 전시기획안은 ‘삶을 짓다: 한국 도시건축, 1950~2010, 한국전쟁에서 세계의 장으로’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, 전시의 핵심 방향은 ①도시 건축 특화, ②실물 경험 중심, ③동시대 현안의 소통으로 설정하였다. 세부 전시 구성은 조형물, 원본 소장품, 실물 부재 등의 다채로운 전시 수단을 이용한 흥미로운 박물관 구성에 중점을 두었다.
-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“올해부터 전시소장품 수집과 전시설계 착수 등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‘25년 개관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”면서,
 - “앞으로 전시 설계·시공 업체가 선정되면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품격있는 도시건축박물관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진해미 사무관(☎ 044-201-3765/044-201-378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

국립도시건축박물관 개요

□ 세종시 박물관단지 현황



- 사업규모/ 기간 : 부지 75,402㎡, 연면적 80,647㎡ / '16년 ~ '27년
- (건립시설/주관부처) 어린이박물관/행복청('23), 도시건축박물관/국토부('25), 디자인박물관/문체부('26), 디지털문화유산센터/문화재청('26), 국가기록박물관/행안부('28)

□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개요



- 사업규모 : 부지 11,970㎡, 연면적 23,457㎡(지상3층 ~ 지하2층)
- 사업기간 : '20~'22 설계 → '23~'24 공사 → '25년 개관
- 총사업비 : 949억원 / 토지 121억, 설계 41억, 공사 747억, 감리비 등 39억
* 전시에산 289억 (설계11억, 시공 278억) 포함 / 유물확보 216억 별도(국토부)

주제

삶을 짓다: 한국 도시건축, 1950-2010, 한국전쟁에서 세계의 장으로

방향

① 도시건축 특화, ② 실물 경험 중심, ③ 동시대 현안의 소통

세
부
전
시
구
성

개관특별전 (중앙홀)

- [상징조형물] 박물관의 비전 '생동하는 박물관' 을 나타내는 작품을 전시하여 참여형 공간 조성

상설전 (B1~B2F)

- [함께 만드는 한국 도시건축 연대기, 1950-2010] 대한민국 도시건축을 시대별, 주제별, 유형별로 소개
- [전후 한국 도시, 어떻게 만들어졌는가] 전국에 시행된 도시건축사업이 삶의 공간에 미친 영향과 세종시의 계획 및 실현 과정 소개

기획전 (B1~B2F)

- [주택유형과 삶의 공간] 한국 근현대 시기의 대표적 주거유형을 실물 크기로 제작하여 경험·체험
- [건축구조·기술·재료] 건축재료와 기술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축부재 전시
- [길 위와 길 아래] 도시 인프라를 단면으로 재현
- [인물과 비전] 한국 도시건축의 선구적 인물과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전시

수장전 (2F)

- [대표소장품] 박물관이 수집한 원본 소장품 및 아카이브 자료 전시

옥외전 (마당·발코니)

- [건물파사드] 2~3층 외부 발코니에 국내외에서 제작한 파사드 목업을 전시
- [마당 프로젝트] 박물관 두 개의 마당에 국내외 건축가 대상 공모를 진행하여 당선작을 제작, 설치, 전시



상징조형물(중앙홀)



상설 및 기획전(B1~B2F)

※ 상기계획은 향후 전시계획의 설계·시공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

□ 인식조사 개요

- (배경) 박물관의 전시·교육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인식조사 실시
- (대상) 최근 1년 내 전시관람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성인 1천명
- (기간/방법) '22. 4. 16 ~ '22. 4. 25 (10일간),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

□ 주요 조사 결과

- (관심도) 응답자의 과반이 평소 도시공간이나 건축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
- (전시) 6가지 전시 주제 중 '주거문화의 발전과 변화'와 '도시인프라', '한국도시건축의 역사와 변천사'에 대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으며,
 - * 주거문화 발전과 변화 70.3%, 도시인프라 69.8%, 한국도시건축 역사와 변천사 66.3%, 건축 재료 63.4%, 전후도시건축사업 59.1%, 한국도시건축의 선구적 인물 57.6%
- 전시콘텐츠 중에서는 '도시건축 작업과정을 보여주는 원본 도면·모형·사진 및 설계 도구 전시'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
 - * 원본 도면·모형·사진 및 설계 도구 전시 69.3%, 실물 크기의 건축 외피 모형 68.2%, 국내외 파빌리온 공모 전시 64.7%, 함께 만드는 한국도시건축 연대기 62.3%
- 기대하는 전시 방식·매체는 '체험형'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, 이어서 '디오라마', '영상전시', '모형' 순으로 응답률이 높음
 - * 체험형 65.6%, 디오라마 48.1%, 영상전시 42.8%, 모형 42.1%, 작동형 38.5%, 사진·그림 33.1%
- (교육) 박물관에서 시행되었으면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'시공 체험', '신기술 장비교육', '제작체험'이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,
 - * 시공체험 55.8%, 신기술 장비교육 55.5%, 제작체험 55.1%, 강의 28.5%, 전문가 초대 27.8%
- 교육 대상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'가족', '대학생, 일반 성인', '중고등학생', '어린이/초등학생' 순으로 높은 응답 결과를 보임
 - * 가족 38%, 대학생/일반성인 19.8%, 중고등학생 18.7%, 어린이/초등학생 14.2%, 전공자 6.5%
- (홍보) 전시 홍보 매체의 경우, 'TV, 신문, 라디오', '소셜미디어', '행사/이벤트 개최', '포털사이트', '온라인 커뮤니티' 순으로 선호
 - * TV/신문/라디오 30.3%, 소셜미디어 29.2%, 행사/이벤트 17%, 포털사이트 12.7%, 온라인 커뮤니티 7.2%